

불교문화 템플라이프로 OK

G-20정상회의 회담국 외교관들 묘각사서 불교 체험

11월 G-20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앞두고 회담국 외교관들이 10월 9일 낙산 묘각사 템플라이프로 참가해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했다.

행사에는 아르헨티나 카를로스 알베르토 대사와 미국 마르티네즈 참사관, 영국 조나단 노트 부대사 등 G20회담국 대사 일행이 참석해 '내 마음 내려놓기'를 주제로 열린 템플라이프로에서 108배 염주만들기, 점심공양, 다도 및 참선 등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르헨티나 알베르토 대사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과의 환담에서 "한국불교문화의 장엄함과 경건함에 감명 받았다.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어서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와 불교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 참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낙산 묘각사 템플라이프로는 올해 9월까지 외국인 950여 명이 다녀갔다.

외교관들은 마지막 회향 시간에 "뜻 깊은 체험의 시간을 마련해 준 관음종에 고맙다. 한국에 있는 동안



조나단 노트 주한영국 부대사(왼쪽)와 네리 마르티네즈 주한 미국 참사관이 다도 프로그램에서 차를 따르고 있다.

불교행사가 있으면 초청해 달라"며 관심을 보였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외국인들에게 낙산 묘각사는 한국과

불교문화를 알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다녀가야하는 체험사찰로 알려져 있다"면서 "관음종을 비롯한 낙산 묘각사 대중들은 보다 신중하고

따뜻한 배려로 한국 문화와 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임란 기록에 묻힌 의승군사 연구"

사명 성사 열반 400주기 표충사서 추모법회

임진왜란 승병장 사명 성사(1544~1610)의 열반 400주기 추모법회가 10월 10일 밀양 표충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원로의원 밀운·성수·혜정·정무·월탄 스님, 불교사 주지 성타 스님,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직지사 주지 성용 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등 교구본사주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두관 경남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 박선규 제2차관, 임홍수 밀양시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봉행사에서 "서산·사명 성사는 5000여 의승군으로 평양성 전투에서, 기허 성사와 800명의 의승군은 청주성 전투를 시작으로 조선의 명운을 밝혔다"며 "사명 성사 400주기를 맞아 임란전쟁의 기록에서 묻혀버린 의승군사(義僧軍士)를 연구 편찬해 호법불교, 호국불교, 구국불교, 민족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추모대제 조직위원장 정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오른쪽)이 사명 성사 영정에 차를 올리고 있다.

(통도사 주지)는 인사말을 통해 "사명 성사의 구국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회두를 주고 있다. 사명 성사의 구국애민의 뜻을 이어가는 국민추모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 앞서서는 조선시대 국가와 유생들이 직접 사명 성사의 제사를 모셔온 전통에 따라 성군관 유도회총본부가 주관한 유교식 다례제가 열렸다.

조동섭 기자

스님이 만든 생식 곡류 50%를 받아시킨 호소 발아생식

- 1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되었습니다.
- 2 유기농으로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 3 99% 국내산 제품입니다.
- 4 돈을 벌기 위한 제품이 아닌 중생들의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판매소를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070-7629-5920

1월 1개 (10g) x 60포 (2개월분) **100,000원**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21세기 현대인을 위한 열린대강좌 · 2010 빛고을불교아카데미

경전의 숲에서 단비를 만나다

2010. 10. 27(수) ~ 11.24(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문화센터 3층대강당

주최 (사)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광주전남불교신도회, 현대불교신문사, 불교TV
주관 광주불교신행단체 공동 후원 광주전남4대본사협의회, BBS광주불교방송
대상 관심있는 모든 분 **등록금 30,000원**
접수처 (사)광주불교사암연합회 ☎(062)376-3223



김강경
10월 27일
지안 스님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아함경
11월 3일
각목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부사



원각경
11월 10일
월운 스님
전 동국역경원장



화염경
11월 17일
도법 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법화경
11월 24일
무비 스님
전 조계종 교육원장



100자 뉴스

운문사 생태복원 공로 대통령상

청도 운문사(주지 진성)가 10월 5일 환경부로부터 운문산 자연생태계 복원·보존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환경부 자연정책과는 운문사의 수상 이유로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모범 △산불로 인해 훼손된 운문산 자연생태계 복원의 적극 추진 △운문산 자연생태계조사(2007~2009년)를 통한 생태계 현황 정리 △운문산 자연휴식년제 실시 △운문사 승가대학 구성 원에의 환경교육 등을 꼽았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기록관리 학자들 조계종 중앙기록관 방문

한국 기록관리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내한한 기록관리 해외 저명학자 및 기록보존소장 등이 10월 15일 조계종 중앙기록관을 방문했다.

이날 중앙기록관을 방문한 전문가는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김학준 원장, 한국외대 정보기록관리학과장 노명환 교수 등 국내 전문가와 안노 길리랜드 미국 UCLA대 교수, 켈빈 화이트 미국 오를라호마대 교수, 디디에르 부두 프랑스 생고뱅사 기록보존소장, 피터 블룸 독일 하이델베르그시 기록관장 등 해외 저명학자 등이다.

조계종 중앙기록관은 기록물 관리 제도화, 전종단적 기록물관리 시스템 운영, 과학적 연구보존서고 운영 등으로 기록관리 학계에서 민간기록물관리 선진사례로 꼽혀왔다.

조동섭 기자

법주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산림 법회

보은 법주사(주지 노현)는 10월 12일 '2010법주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산림 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을 전제대화상으로, 노현 주지스님을 전제야사리, 무상 스님을 갈마야사리, 철안 스님을 교수야사리 등으로 참석해 1500여 불자들이 동참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진관사 국행구륙대제 · 역사문화축제

서울 진관사(주지 계효)는 개산 1000년을 맞아 국행수륙대제 재현 및 삼각산 역사문화 축제를 10월 6~24일 봉행한다. 행사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600년을 이어온 전통의례문화인 국행수륙대제 재현과 1397년 진관사 수륙사 건립 태조여가행렬이 재현된다.

행사는 13일 어르신발공양과 16일 삼각산 달오름 음악회에 이어 23일 오전 10시에는 진관사 1000년 개산대제가, 오후1시에는 태조여가행렬이 연신내 등 진관사 일원에서 펼쳐진다. 국행수륙대제는 23·24일 오전 9시부터 봉행된다. (02)359-8410

조동섭 기자

BBS노조 김영일 사장대행 퇴진 촉구

불교방송 노동조합(위원장 송근선, 이하 BBS노조)이 김영일 사장대행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BBS노조는 10월 12일 서울 다보빌딩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연봉이 1원이라는 김영일 사장이 실제로는 매월 400~500여 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며 김 사장직무대행의 퇴진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김영일 사장직무대행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연봉은 1원이며 수익이 난 후 급여를 받아가겠다"고 알려왔다.

노조의 사장직무대행 퇴진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김영일 사장직무대행이 약속과 달리 1년간 급여를 수령해 온 배신감과 함께 경영난 개선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송근선 위원장은 "김영일 사장직무대행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출근저지 등 강경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봉원사 토지등기 완료

태고종 소유분 7만평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인공)은 "2010년 초 조계종과의 분쟁이 종식됨에 따라 봉원사 소유분으로 확정된 토지 26만6600평방미터(7만 8987평)의 토지등기가 9월 28일자로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명의로 등기완료 됐다"고 10월 12일 밝혔다.

이번에 등기를 마친 토지는 봉원사 법당, 요사채, 사찰 유지를 위한 후사면, 주차장 부지, 비림 등이다.

봉원사(주지 일운)는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봉원사를 명실상부한 종단 총본산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은 "신도회를 포함한 봉원사중흥불사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소유권 분쟁으로 침체된 불사를 다시 일으키고, 봉원사를 세계문화유산인 영산재를 중심으로 한 세계불교문화의 본령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미승사 개원식

10일 삼존불 점안

진주시 정촌면에 자리한 (사)대한불교 우리조계종 총본산 미승사(총무원장 지도)는 10월 10일 법당개원식 및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증법법사인 원로 금담 스님과 해동불교임제종 종정 석지 스님, 대한불교불일종종종 응관 스님을 비롯해 종단 대덕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지도 스님은 "종도들의 염원과 기도원력으로 불보전을 완공하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금담 스님은 "흘러가던 모든 물은 바다에서 하나가 돼 만나면 어디서 온 더러운 물이라도 크나큰 바다 품에서 깨끗한 물이 된다"면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삼독심을 버리고 부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불국토도 하나가 될 것이다. 기도정진하자"고 법문했다.

법회 후에는 종단 발전을 위한 중도 모임과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불자노래 한마당이 열렸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